

2024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 Vol.5

ISSUE FOCUS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WHERE
edition

ISSUE FOCUS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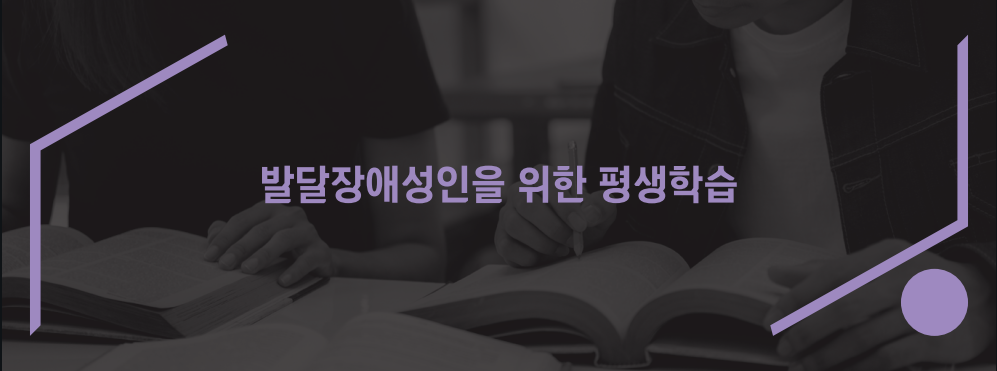
ISSUE



- > 평생학습이 국민 모두의 권리임에도 여전히 소외된 계층이 있다.
- >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 > 대학 기반의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평생학습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은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평생학습의 기회는 항상 부족하다. 대부분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성인은 가정이나 시설에서 의미 없는 반복적인 생활을 하는 편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성인의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지역사회 내 구성원으로 살기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 및 활동 참여 기회와 기초문해,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2001년 국내 최초로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학기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 아카데미(E-ACOLA)’를 개발하고 현재까지 24년간 운영 중인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WHERE EDITION’은 인터뷰 조사를 통해 평생학습 현장의 이슈와 사례를 발굴하여 평생학습의 현재와 현황을 공유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평생학습

2016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서울시는 2017년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행동 및 태도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는 제한적이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이아콜라(E-ACOLA)는 국내 최초로 대학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발달장애인이 성인기에 생활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능적 교육과정’, ‘특별활동’, ‘외부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15주간 운영한다.

“

**발달장애인은 학령기 이후
성인기에 필요한 지식, 기술, 행동 및
태도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 아카데미(E-ACOLA)’ 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의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 아카데미’(E-ACOLA: Ewha Academy for COMMunity Living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이후 ‘이아콜라’로 칭함)는 발달장애성인을 위해 국내 최초 대학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아콜라는 발달장애인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성인기 생활에서 다양한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행동 및 태도를 교수하는 대학기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효시로서 2001년 2학기에 시작하여 2024년 1학기까지 24년간 35기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발달장애인은 지적기능성과 적응행동에서 심각한 제한성을 가진 **지적장애인**과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행동을 보이는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지연되어 학업,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3년 주기) 결과에 따르면 등록장애인¹⁾은 264만여 명이고, 그 중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비중은 10% 정도 됩니다.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평생학습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나요?

발달장애인들에게 고등학교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도 급변하는 사회에서 성인기에 기대되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질 높은 ‘중등이후교육’²⁾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의 의무교육을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1년 또는 2년간 직업교육 및 사회정착을 돕는 ‘전공과’³⁾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질 높은 평생학습 기회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성인기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 의사소통방식 등을 전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며 더구나 대학기반으로 운영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간 학령기 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던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교육 기회가 차단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에게 그때부터 자녀의 계속교육을 위해 많은 정보력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1) '23년 5월말 기준.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지적, 신장, 정신, 자폐성, 언어, 뇌전증 등을 포함한 15가지 장애유형이 있음.

2) 특수교육 학계에서는 평생교육, 성인교육, 대학교육, 고등교육 등의 다양한 이름을 포함하는 중등이후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PSE)이 적절한 용어이나 평범하게 이해되기 위해 평생교육이란 용어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함.

3)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전공과는 학교 및 학급에 따라 일상생활, 직업생활, 미용, IT 등 다양하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대학으로 진학 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이아콜라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적 교육과정과 특별활동을
교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이아콜라에서는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이아콜라는 대학교 학기와 동일하게 매 학기에 15주 동안 운영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3시간(180분) 동안 진행되며, 1교시 ‘기능적 교육과정’⁴⁾(functional curriculum), 2교시 ‘특별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교시 기능적 교육과정 시간에는 발달장애성인이 주요 생활영역(가정생활, 지역사회생활, 여가생활, 직업생활 등)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행동 및 태도를 배웁니다. ‘기능적’이라는 뜻은 특수교육 분야에서 ‘이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 해주어야만 하는 생활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내용’(예: 식사 준비해 먹기, 자신의 몸 건강관리, 생필품 사기 기술 등)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 매 학기 저와 강사들이 논의하여 주제를 정하는데, 올해 2학기에는 ‘기능적 과학(functional science)’을 주제로, 전자제품의 다양한 포트 연결, 각 나라의 시차는 왜 생기는지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더 안전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삶을 위한 ‘기능적 과학’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2교시 특별활동 시간에는 통합된 지역의 한 시민구성원으로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며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들, 즉 댄스, 합창, 생활체육(배드민턴 등), 아프리카 신생아를 위한 모자 뜨기, 사진 찍기 등 다양한 활동의 학습을 기획해서 전문강사의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폐소생술, 남산트레킹, 연극관람, 미술관 관람 등 학기 중에 ‘외부활동’을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특수교육학 용어로, 생활에 적합하고 유용하고 실용적인 생활 기술들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의미함.

교육과정이 생활에 필요한 내용과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인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수업에 대해 좀 더 소개해주신다면?

지난 24년간 진행해 온 몇 가지 강좌 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기 '성인기 4가지 생활영역에서 지역사회중심 교수'
- 11기 '사진과 이야기'
- 16기 '일상생활예절'
- 17기 '성인기 경제생활'
- 18기 '성인기 건강관리'
- 20기 '품위 있는 인터넷 활용'
- 23기 '생활 속의 심표 : 여가기술'
- 29기 '상황에 맞는 대화기술'
- 33기 '핵심안전교육'
- 35기 '기능적 의사소통 :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요'

이런 강좌 주제들에서 나타났듯이, 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생활을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행동 및 태도를 발달장애인 학습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합니다. 특별히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해 전문적으로 고안된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중심 교수(Community-referenced Instruction)로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개별 수강생의 수행 수준(예 : 상, 중, 하 그룹)에 맞추어 개별화된 교수지원이 제공됩니다.



수업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매학기 초에 선착순으로 수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 학기 수강료는 24년 전(2001년 2학기) 처음 시작할 때 32만 원이었으며, 2024년 1학기부터는 한 학기에 60만 원입니다. 멀리서도 찾아오시고 수년간 계속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강료는 강사료와 15주 수업 재료비 및 수업활동 진행비로 모두 사용됩니다.

이아콜라 프로그램을 개설할 당시(2001년 9월)에 대략 12명 이내로 시작했는데,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계속 인원이 늘어 이번 2024년 1학기에는 24명 수강생이 참여했습니다. 더 많은 인원을 받고 싶지만 '높은 질'의 수업을 유지하기 위해 인원을 대략 최대 20명 이내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이지만 평생교육원에는 '남녀' 학생이 모두 수강신청을 할 수 있고, 이아콜라 수강생도 남녀 비율이 대략 반반 정도입니다.



대학에서 운영되는 발달장애성인 평생학습 현장

대학교 캠퍼스에서 운영되는 이아콜라는 발달장애성인에게 고등교육 환경과 비장애 동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공 교수 및 강사가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자원활동가가 보조교사의 역할을 해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외 이아콜라는 성인기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세미나, 사전·사후평가 등 발달장애성인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운영 노하우를 담고 있다.

**발달장애성인 학습자들이 이아콜라에 재등록하고 계속 찾아오는 이유,
이아콜라만의 특별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운영되는 것이 가장 큰 특별함인 것 같습니다. 대학의 캠퍼스, 편의시설 및 다양한 학습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은 비장애인 동료 집단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고,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중등이후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발달장애성인에게 대학에서의 교육 경험은 사회에서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성인기 발달장애인 수강자들은 학령기 학교생활과 달리 자칫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가 있는데, 이아콜라 수강생들은 프로그램에 한 학기 참여하면서 상호간에 친구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아콜라 프로그램 시간이 끝난 후에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가 이어져서 이들이 스스로 만든 ‘사회적 지원망’의 일원이 되어 서로를 챙기는 친구가 되는 것을 매우 기뻐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

**대학은 비장애인 동년배집단을 만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대표적인 통합교육 환경이고, 대학 환경에서
교육기회는 발달장애인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

전문성 있는 강사진도 이아콜라의 특징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전공 책임교수와 강사가 15주 교육과정을 신중하게 협의하며 1교시와 2교시 내용과 2회 외부활동을 선정하고, 특수교육 전공 주강사(부강사가 함께 하기도)가 1교시를 교수합니다. 2교시 특별활동 역시 책임교수와 주강사가 교육과정 주제와 내용을 기획하고, 장애인 대상으로 강의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는 특별활동 분야의 전문가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학기에 ‘합창’ 수업 선생님은 이대에서 학부과정은 성악을 전공하셨으며, 음악치료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로 장애인 대상 음악 수업 경험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특수교육 전공 교·강사는 특별활동 시간에도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의실에서 함께 참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아콜라에서는 수업시작부터 대략 수강생 2명당 1명의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자원활동가가 학습파트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학부생과 제가 가르치는 교양 과목인 ‘장애와 사회’ 수업을 수강한 다양한 전공(사학, 사회학, 체육 전공 등)의 대학생들이 자원활동가로 참여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성인 수강생의 효과적 학습을 위한 보조교사 역할 뿐 아니라 수강생들과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지인 관계(아는 선후배)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친구관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대학 캠퍼스와 지역사회에서 장애 친화적 문화 조성과 장애인식 개선에도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보조교사로서의
자원활동가가 함께합니다.

”



**발달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학습 파트너로 함께 해주시는 보조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발달장애인은 인지적 제한성이 있어서 대부분 학습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학령기에 특수교육을 받을 때도 보조교사의 지원이 있었는데, 성인이 되었다고 갑자기 이런 지원 인력의 도움이 없어지는 것은 발달장애인 성인학습자의 학습에 쉬운 일이 아니죠.

자원활동가는 발달장애 수강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수업 내 다양한 활동 및 외부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파트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의 다양한 학습 지원 요구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강생과 자원활동가가 짝으로 만나 한 학기 15주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수강생과 자원활동가 사이에 자연스러운 우정관계가 형성되어 학기가 종료된 후에도 오랜 기간 좋은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아주 빈번합니다. 발달장애성인에게 문제가 되는 사회적 고립 현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콜라의 보조교사가 자원활동가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보조교사로 참여하시나요?**

보조교사로 대학 및 대학원생, 졸업생, 직장인 등 비장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특수교육과 학부생 네트워크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해서 자원봉사를 신청받고 있는데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학기 시작 전 자원활동가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공은 특수교육 전공인 학생들이 많지만, 전공이 다양한 편입니다. 이 학생들이 연속적으로 보조교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된 뒤에도 보조교사를 하겠다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화여대가 여자대학교여서 남자 봉사자가 필요할 때는 타 대학에서 특별히 남자 자원활동가를 구해온 적도 있습니다(남자 수강생의 화장실 사용에 도움 등).

이화여대 재학생들이나 졸업생의 경우 보조교사로 참여하면, 교내 비교과 활동으로 수료증을 발급해 주고, 재학 학부생의 경우에는 ‘사회봉사’ 교과목으로도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 학생들이나 직장인의 경우 요청 시 이화여대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명의의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아콜라에서 수강생들의 부모님을 위해 ‘부모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부모세미나는 어떤 주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많은 교육을 받는데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부모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아콜라에서는 학기 중에 ‘성인기’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세미나’를 1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부모 오리엔테이션 때 성인기 발달장애 자녀의 성문제, 결혼문제, 성년후견인제도, 그룹홈⁵⁾ 등 주제를 정해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 더 알고 싶은지 수요조사도 진행합니다.

이번 가을 2024년 2학기에는 부모의 재산을 발달장애 자녀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은행 신탁제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성인기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세미나를 운영합니다.

”

이아콜라가 재등록율이 높고, 이런 세미나를 운영하다 보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학교에 물어볼 수 있는데, 성인이 되면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쉽게 접근 가능하지 않은 편입니다. 최근 그룹홈에 들어간 자녀를 둔 부모님을 중심으로 그룹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성인 자녀를 독립시키기 위해 부모님들도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부모님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5) 그룹홈(Group Home)은 97년부터 서울시에서 도입한 복지제도로,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내 주거서비스 기관을 의미함.

“

사전 평가로 수업을 설계하고, 사후 평가로 수강생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합니다.

”

이아콜라는 수강생들의 변화와 성장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시험도 있나요?

각 학기 강좌 주제에 대해 각 수강생마다 사전·사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주차 수업을 시작 전에 수강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15주차 수업이 끝나면 수업에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배웠는지 평가합니다. 사전 평가를 통해서 수강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서 수강생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합니다. 평가방법은 강좌 주제에 따라 다양합니다(관찰, 구두평가, 지필검사 등). 한 학기 동안 성장하고 변화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2학기 32기 이아콜라 사전평가
'슬기로운 지역사회생활'

/ 20

이름: _____

1시간 6분 10:00 ~ 11:06

1. [대중교통] 다음은 카카오프 앱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롯데월드'에 가는 방법을 검색한 결과입니다. 빈 칸에 알맞은 답을 그림에서 찾아 써주세요. (4점)

(1)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롯데월드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 _____

(2) 이대부고 정류장에서 (버스 / 지하철) 를 타고 가다가 경복궁역에서 (버스 / 지하철) 로 갈아타야 한다.

(3) 경복궁역에서 지하철 _____ 호선을 타고 가다가 을지로3가역에서 _____ 호선으로 갈아타야 한다.

(4) 롯데월드에 가려면 _____ 역에서 내려야 한다.

2. [병원]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어느 병원에 가야할까요? '보기'에서 골라서 쓰세요. (3점)

※ 보기: 정형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내과, 피부과, 치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1) 발목을 뺐었을 때: _____

(2) 감기에 걸려서 머리도 아프고 기침이 날 때: _____

(3) 오랫동안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해서 마음이 힘들 때: _____

3. [약국] 다음 중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플 때 두통약(예: 타이레놀)을 살 수 있는 곳을 모두 고르세요? (0.5점)

① 약국 ② 편의점 ③ 병원

4. [카페] 다음은 '스타벅스' 메뉴입니다. 메뉴를 보고, 아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해주세요. (3점)

(1) 카페 아메리카노 '톨(Tall)' 사이즈는 4,500원이다. ()

(2) '핫(hot)'은 차가운 음료이고, '아이스(iced)'는 따뜻한 음료이다. ()

(3) 가장 큰 음료 사이즈는 '벤트(Venti)'이다. ()

5. [음식점 이용] 다음은 '롯데리아'의 무인주문결제기(키오스크) 화면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몇 번을 눌러야 할까요? (2점)

(1) 롤라랑 감자튀김은 먹기 싫고, 햄버거만 먹고 싶을 때: ()

(2) 롯데리아 안에서 먹고 가고 싶을 때: ()

6. [ATM 이용] 다음은 ATM 기기의 화면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몇 번을 눌러야 할까요? (3점)

(1) 현금이 필요해서 체크카드 안에 들어있는 돈을 꺼내야 할 때: ()

(2) 체크카드에 돈이 얼마 남아 있는지 보고 싶을 때: ()

(3) 체크카드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야 할 때: ()

“

**이아콜라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성인 학습자는 대부분 직장인이며,
일하며 배우는 평생학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성인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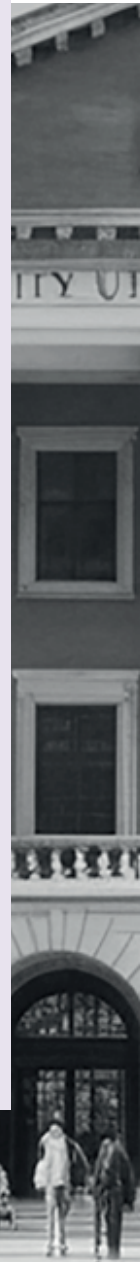
이아콜라가 한 학기에 수강생을 20명 내외로 모집해서 운영하는데, 수강신청이 3분 안에 마감되는 등 수강 희망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입소문으로 멀리서도 학생들이 찾아오고, 10년 동안 계속 다니신 분도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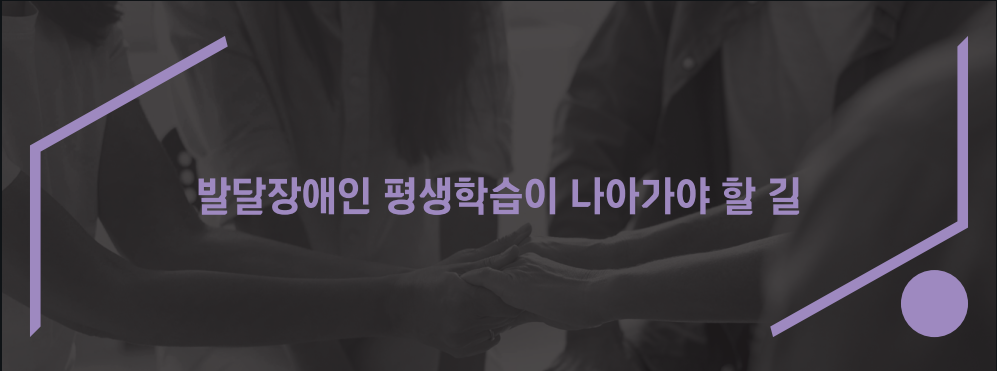
외부 지원이 있다면, 주 1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동시에 분반으로 강좌를 추가로 개설해서 수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수강생들 모두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지금 운영하는 주 1회 수업에서 주 2~3회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이아콜라를 찾아오는 수강생 대부분이 ‘직장인’이라 “일하며 배우는” 평생학습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는 현재 진행되는 주 1회 토요일 3시간 교육 프로그램이 중대한 제한점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24년간 인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좌 수를 늘리는 데에 또 다른 문제는 전문성과 헌신도를 갖춘 강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높은 전문성과 헌신도를 갖춘 강사를 토요일 수업에 적절한 급여를 제공 하면서 모시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아콜라는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교수인 제가 처음 개발한 2001년부터 현재까지 24년간 ‘무급’ 봉사로 이아콜라를 직접 실행해오고 있어서(교육과정 개발부터 강사 발굴과 15주 수업진행 교수방법 고안 및 종강파티까지) 전문성 있는 강사 확보의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특수교육 전문가의 참여를 어떻게 독려할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이아콜라의 수강생들의 대부분이 직장인이라는게 놀랍습니다.

이아콜라를 처음 시작한 2001년 9월 이후로 초반에는 이아콜라를 주 2~3일을 운영하기를 희망했죠. 그때는 수강생들 대부분이 평일에는 집에서 쉬다가 토요일 하루만 이아콜라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고용이 증가되어 직장을 다니는 발달장애인이 많아졌고, 이아콜라 프로그램이 ‘토요일’에 진행되니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하고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아콜라에서 ‘직장인으로서 가져야 할 공통매너’와 같은 교육과정을 교수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장인 관련 공통직무기술(예: 시간 엄수하기, 직장동료 및 상사와 대인관계 등) 등 직장 생활에 적응하여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이 평생학습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이 나아가야 할 길

발달장애성인도 비장애성인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한 시민이자,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행동 및 태도를 배우는 ‘평생학습자’이다. 평생교육기관은 발달장애인을 평생학습자로 존중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하는 교육을 체계적이고 종단적으로 설계하고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성인기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에 접근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독립과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생산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교육-직업-주거 서비스의 연계가 중요하다.

이아콜라가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은 비장애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성인이 ‘평생학습자’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에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들과 비교했을 때, 이아콜라는 발달장애성인 학습자를 위한 질 높은 교육과정, 효과적인 교수전략의 적용, 그리고 대학교육 환경의 적합도를 중시합니다.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단순히 특정 활동 참여기회 제공에만 초점을 두고 개별 학습자의 중등이후교육의 성과를 크게 개의치 않은 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축약하면,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교육’이 아닌 단순 활동 참여기회 제공으로 만족하는 듯 보입니다. 발달장애성인을 학습자로 존중하지 않아서 진정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개별 학습자의 교육 성과를 잘 기대하지 않는 편입니다.

시 시대의 100세 수명 시대에,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고등학교 교육으로 학습이 끝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성인기를 예측합니다. 발달장애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질 높은 평생학습이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배울 것이 너무도 많이 매일 생성되기 때문에, 특수교육 전문가들이 학령기 교육을 넘어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에도 참여해야만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통합된 지역사회의 한 시민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성인기, 특히 성인기 초기에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교육철학의 가치 아래 이아콜라는 ‘대학교 환경’에서 비장애인 동료학습자인 ‘자원활동가’와 부분적으로나마 (또는 최대한) 함께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통합된 지역사회에 물리적으로 실재하며, 한 시민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최대한 생산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요구되는 지식, 기술, 행동 및 태도를 학습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이아콜라는 비장애인 동료학습자와 함께 발달장애성인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

이아콜라와 같은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기고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처음 이아콜라를 시작할 때 제가 ‘E-ACOLA’(Ewha Academy for COMMunity Living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이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만들었던 이유도, 대학 기반의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화에서부터 시작해 다른 대학들에서, 예를 들면 서울대에서 S-ACOLA, 연세대에서 Y-ACOLA, 성균관대에서 SK-ACOLA 등으로 확장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소재한 전문대학 혹은 4년제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아콜라가 하나씩만 운영된다면,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대학기반 평생학습 기회가 현격히 증대되며 장애인 및 비장애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에는 지역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생기면서 커리큘럼에 대한 문의나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올해는 24년간 운영했던 이아콜라 커리큘럼을 책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잠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단발성 교육이 아니라 20대, 30대, 40대... 계속되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평생학습자로 존중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센터, 대학 평생교육원 등 발달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먼저,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평생학습자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성장하죠.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한 번 더 설명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평생학습자로 존중하면서 개별적 학습 요구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교수하면 발달장애인이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 기술, 행동 및 태도를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아콜라 프로그램에서 최근 AI나 챗봇과 같은 4차 산업과 관련된 단어들도 가르치고, 퀴즈대회를 열었더니 정말 열심히 공부해오더라고요. 사회의 급변화에 따른 시사용어, 성인기 생활의 한 부분인 장례식 등 경조사에서 필요한 예절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발달장애인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교육전공자들이 적어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어떤 교육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특수교육 전문성은 저조한 편이죠. 현재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종사자들을 위해, 특히 발달장애인 성인학습자 대상의 교육과정 고안 및 교수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교육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성인기의 다양한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행동 및 태도가 분명히 있죠. 현재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대상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은 단순 특정활동(예 : 요리하기, 볼링치기 등)으로만 운영되고, 그 안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 생략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설계하고 그 교육목표에 맞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우선은 발달장애인을 평생학습자로 존중하고, 개별 발달장애인이 최대한 독립적 및 상호의존적으로 자기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하는 ‘교육’을 체계적이고 종단적으로 설계하고 제공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 특수교육 전공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장애가 15가지로 구분되고, 같은 장애더라도 그 안에 장애 특성과 정도 범위가 광범위하죠. 예를 들면, 다리만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는 분과 비장애인이 같이 철학 수업을 듣는 것은 어려움이 크게 없겠죠. 하지만 인지적 제한성을 가진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철학 수업을 들으며 동일한 학습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통합수업을 할 강좌의 내용의 '적절성'을 '발달장애인 학습자' 입장에서 평가해 보아야 하겠지요. 과연 그 내용이 현재 이분들에게 반드시 학습해야 할 우선순위 내용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적기능성이 현저히 제한적인 지적장애인이거나 자폐성장장애인이 배워야 할 내용은 급변하는 세상에서 매일 점점 많아지니까 '우선순위화'는 아주 중요한 과제죠. 그렇다고 발달장애성인에게 철학 수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이나 교수전략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것이지요. 즉 교수적 수정(박승희, 1999)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필수적 이해를 가지고, 어떤 강좌를 통합수업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통합수업을 위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교안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통합수업을 진행하는 강사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사전 교육도 필요합니다.

“

발달장애인의 20대부터 40대까지 지원하는 평생교육 체계가 구축되길 바랍니다.

”

앞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협력이 더 필요할까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교육 측면에서 지원하는 마스터 플랜을 짜고, 그 체계 안에서 평생학습을 제공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에서 성인기를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해서 프로그램의 목표나 계획을 다르게 세우는 것처럼,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도 20대부터 40대까지 최소 30년간 장기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도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육과정도 개발된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동교육과정'이고 개별 발달장애인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추어 개별화된 교육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3개 부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성인기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접근해야 합니다. 3개 부처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서로 타 부서 일이라고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직업'이 들어가면 고용노동부라고 생각하는데, 직업 훈련은 교육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독립과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생산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교육-직업-주거 서비스를 연계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 바라는점이 있다면?

강사와 보조교사 등 강사인력을 지원하는 재원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사실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예산의 반 정도가 강사비예요. 평생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N명당 1명의 보조교사가 필요하다면, 강사와 보조교사의 강사로 일부는 공공에서 부담해서 현장에 높은 전문성의 강사와 보조교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와 보조교사에 대한 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 특수교육 전공 강사나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평생교육기관에 당장 특수교육 전공자가 배치되기 어렵다면, 발달장애성인을 대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 프로그램 ‘시작 전’에 장애인 평생교육 및 특수교육 사전 전문연수와 더불어 정기적인 재교육 연수 등 단계적인 연수교육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성인 학습자에게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에 대한 이해,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특성, 교육과정 고안, 수업을 위한 교안작성 및 교수학습 전략 등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건데요,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해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가 줄어서 남는 학교나 대학의 유휴공간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해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몇몇 대학에서 첫 시도를 시작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전공과’를 ‘대학교’ 캠퍼스 환경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런 시도는 통합교육 환경인 대학교 캠퍼스에서 발달장애성인의 중등이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것입니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통합교육 환경인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 환경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일반학과나 일반학교 내 별도 프로그램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학과를 포함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대학기반 중등이후교육’을 제공할 교육환경이 이미 충분히 다양하게 실재합니다(박승희 외, 2023.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 모델 개발 연구”). 물론 학위 및 비학위과정 모두 가능합니다. 장애인만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 설립은 지양하는것이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서울에 2-3년제 전문대학 혹은 4년제 대학에서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학기반 중등이후교육’ 프로그램이 생겨서 다양한 전공(예: 공학, 인문학, 미용, 예체능 등 전공)을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성인, 평생학습 현장에서 '평생학습자'로 마주하다.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기관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일반 평생교육기관, 장애인복지시설, 특수교육기관 등 다양하다.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1,856개,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1,473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3,920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에서 총 8,741개를 운영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단순하고 획일적이며 반복적인 편이다.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기 계발,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을 찾아가지만 아쉽게도 공급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많다.

이아콜라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학령기 이후에 발달장애인이 성인기에 필요한 지식, 기술, 행동 및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 환경에서 전문성 있는 강사진과 대학(원)생 보조교사(자원활동가)와 함께하는 교육 경험은 발달장애인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이아콜라는 성인기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을 위한 세미나를 운영하고,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평생교육기관은 발달장애인을 평생학습자로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이 주체적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양질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강사인력을 개발하고 강사료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재교육 연수도 필요하다. 더불어 발달장애인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생산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교육-직업-주거 서비스를 연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평생학습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

FOCUS

사회 변화에 따른 지식, 대인관계, 사회적 소통, 진로와 직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평생학습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삶의 변화는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발달장애성인이 보다 독립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평생학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 단계에서 필요한 평생학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할 것이다.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 소개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는 주목할만한 평생학습 이슈를 선정하여 WHERE, WHO, WHAT, HOW, WHY 5가지 카테고리로, 평생학습이 우리 주변 어디서 이뤄지고 있는지 현황과 현황을 보여주고, 앞으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를 제안합니다.

집필(인터뷰) : 박승희(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기획/편집 : 이은주, 정미란(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정책팀)

참고문헌

- 박승희(1999). 일반학급에 통합된 장애학생의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적 수정의 개념과 실행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34(2), 29-71.
- 박승희(2004).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개관 및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34(2), 29-71.
- 박승희, 김유리, 이효정, 이희연, 최하영 역(2015). 지적장애학생의 중등이후교육: 대학을 생각하다. 시그마프레스.
- 박승희(2016).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전망과 과제: 지적.발달장애인의 중등이후교육 활성화를 위한 육하원칙 쟁점.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28. 부산대학교.
- 박승희, 홍주희, 정지희, 이성아, 이영주(2019). 한국 발달장애성인의 삶의 질 척도(QLS-KADD) 개발 및 타당화. 특수교육학연구, 54(3), 167-203.
- 박승희, 이성아, 김유진(2023.11).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 모델 개발 연구. 교육부(발간등록번호 11-1342000-001033-01).
- 박승희, 이숙향, 이희연, 이현주 역(2021). 지적장애인 교육: 학교급별 교수전략, 교육과학사.
- 박승희, 박윤희, 한선영 역(2022). AAIDD 12판 지적장애: 정의, 진단, 분류 및 지원체계. 교육과학사.
- 보건복지부(2024).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장애인정책과,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1225&act=view(2024. 4. 30.)
- 보건복지부(2024). "2023년 등록장애인 264만 2,000명, 전체 인구 대비 5.1%", 보도자료. 장애인정책과,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1120&act=view(2024. 4. 14.)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SEOUL LIFELONG EDUCATION INSTITUTE